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변화

이 태*·안준홍**

초 록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임금근로와 자영업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를 분석 표본에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의 소득 증가는 가사 및 돌봄 노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임금근로자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기혼 여성의 근로시간 증가는 가사 노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돌봄 노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관이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 내 미취학 아동의 수로 나타났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수가 한 명 증가할 때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임금근로 및 자영업 여성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혼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돌봄 노동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의 평일 돌봄 노동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을 좀 더 다양한 변수들과 다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기혼 여성의 시간 분배,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성역할 인식, 가정 내 무급노동

* 제1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mizzoutai@kwidimail.re.kr)

** 교신저자: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jahn@kip.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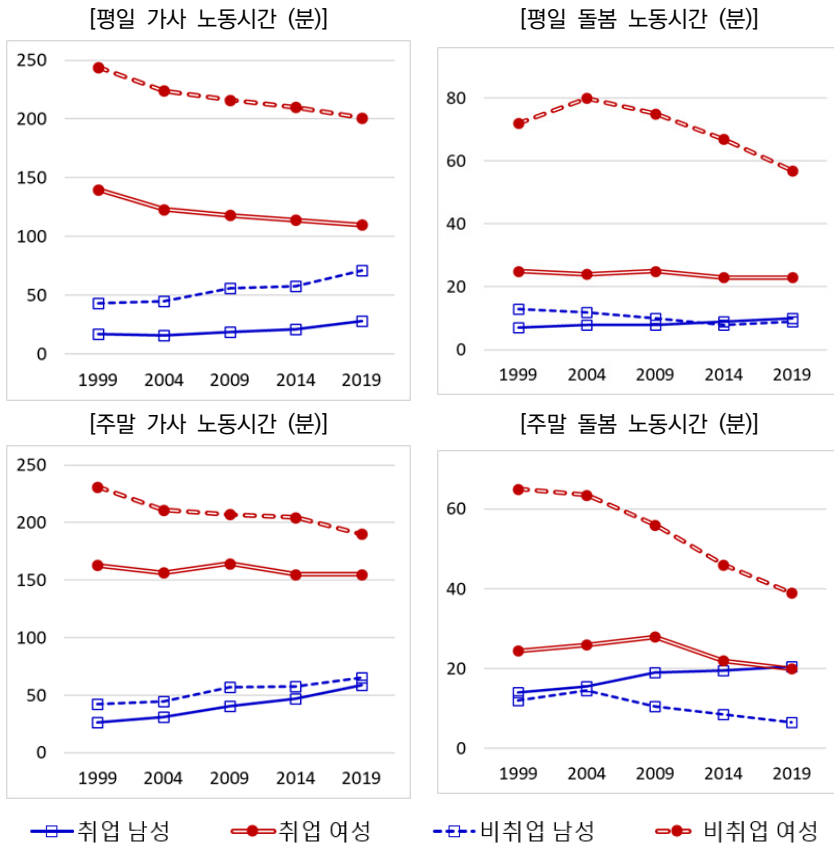
I. 서론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은 급격히 증가해 왔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명목적으로나마 성별 간 노동시장 불평등은 감소 추세에 있다. 전통적 가정 구조인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중은 약 45.4%까지 증가하였다.¹⁾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Hwang(2021)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형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학 졸업 후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급감하지만, 이후 자녀의 성장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발생하였다.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의 주체로만 여겨지던 전통적인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경제활동을 하며 남성과 같이 소득을 올리고 가정 내 무급노동은 남성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정 구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남성이 가구주로서 가구 구성원을 부양하는 모형(남성생계부양자 모형; Male Breadwinner Family Model)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배은경 외(2009)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형’보다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소득을 올리고 가정을 이끄는 ‘2인 부양자 모형’이 다가오는 시대에 더 적합한 가치 체계라고 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상승만큼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윤자영(2020)은 가정 내 노동은 비시장 노동이며 노동에 대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 무급노동(Unpaid Work)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성별 간 불평등 문제 또한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안미영(2016, 2017)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유급 노동에 대한 남녀 간 불평등은 제한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무급노동 즉, 가정 내 무급노동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배호중(2015)의 연구는 가정 내 무급노동 배분으로 발생하는 성별 불평등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1)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0년)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맞벌이 가구 비중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2019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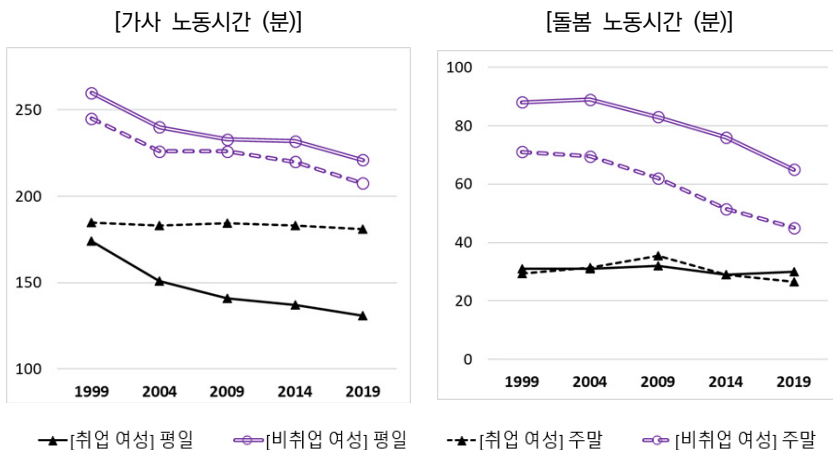
주: 주말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평균치를 의미

[그림 1] 취업상태별 성별 간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변화

[그림 1]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성인 남녀의 취업상태별 노동시간과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비취업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은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가정 내 노동시간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성과의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식의 변화로 남성의 가정 내 노동 분배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성별 간 불평등을 해소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 분배와 관련된 이슈는 성별 간 불평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정 내 무급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변화는

남편의 가정 내 노동 참여 증가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인식됐다. 이러한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의 변화는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라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의 변화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취업상태에 있는 기혼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보다 비취업 상태에 있는 기혼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취업상태 및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서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의 차이를 검토해 본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2019년 자료

[그림 2] 기혼 여성의 취업상태별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변화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주요 이론 중 하나인 상대적 자원 이론(Relative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남편이 배우자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주어지는 보상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질 경우, 남편은 근로시간을 늘리고 부인은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부부간 시간 배분을 변화시킨다(Becker, 1985).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남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자원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절대적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임금 수준까지도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을 결정하

는 요인으로 여성의 학력 및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종일제·시간제)에 주목하고 있다. 황지수(2022)는 기혼 여성의 학력에 따라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안미영(2016)은 맞벌이 가구를 구성하는 남녀의 고용 형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다를 것을 확인하였다. 박기남(2009) 역시 여성의 고용 형태에 따른 일-가정 시간 분배 문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용 형태에 따라 일과 가정에 배분하는 시간 패턴이 다를 것을 보여주었다. 임금근로자 여성의 고용 형태가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 또한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분배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행태가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기혼 여성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부간 무급노동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도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을 전업주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서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과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며 본 연구의 차별점을 설명한다. 이어서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제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정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 분배 관련 이론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 분배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 개념에 기반한 상대적 자원 이론을 가정하고 부부간 노동시간 배분 결정을 설명한다. 경제학의 전통적인 노동공급 결정 분석 모형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총 시간을 근로시간(Work)과 여가(Leisure)로만 나누어 분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Becker(1985)는 가정 내 가사와 돌봄 노동은 개인에게 여가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구의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경우, 남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비슷한 교육 수준을 받은 다른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가정 내 남편이 배우자보다 소득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남편은 근로시간을 늘리고 부인은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게 된다.²⁾ 그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은 점차 가사와 돌봄 노동에 집중하게 되고 남성은 근로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배호중(2015)은 상대적 자원 이론을 바탕으로 부부간 시간 분배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 자원의 비교우위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지게 되어 자신은 노동시장 활동에 집중하며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상대적 자원 이론 외에 가정 내 무급노동 배분 및 불평등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도 존재한다. 가용시간론(Time Availability Theory)은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 배분 결정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더욱 많은 무급노동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유급 노동시간이 길다면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이현아·김주희(2021)에 따르면 가용시간론은 지금까지 유급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남편들의 짧은 무급 노동시간에 대해 유용한 설명력을 가진다. 하지만, 남편과 유사한 수준의 유급 노동시간을 갖는 여성에 있어서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이 남편보다 긴 현상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성역할에 기반한 성별 간 무급 노동시간 분배 이론(성역할론: Gender Perspective)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규범화된 역할이 존재하며 이는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 분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Brines(1994)와 Greenstein(2000)은 가사 노동시간의 분배 결정은 (가용시간론이나 상대적 자원 이론에 따른) 합리적 결과일 수도 있지만,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부부 내 협상력이 낮은 남성이 협상력이 높은 남성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경우도 관찰되며, 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역할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가치관)에 따라 가사 노동이 분배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허수연·김한성

2) Becker(1985)는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무급노동이 결혼한 여성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이는 같은 교육 수준의 미혼 여성(근로시간은 동일)보다 적은 임금으로 연결됨을 통계적으로 밝혀냈다.

(2019)은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 분배에 관한 세 가지 이론 중 가용시간론이 우리나라 무급노동 분배 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밝혔으며, 상대적 자원 이론과 성역할론은 부부간 무급노동 분배를 제한적으로만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상대적 자원 이론, 가용시간론, 그리고 성역할론의 세 가지 이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상대적 자원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여성을 기준으로 부부의 상대적 근로소득 수준을 주요 변수로 활용한다. 상대적 소득의 정도와 함께 여성의 절대적 소득액을 추가로 통제함으로써 기혼 여성의 소득 변화가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리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용시간론은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과 주당 평균 근무시간 변수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성역할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성역할 가치관을 측정하는 변수를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는 5개의 설문 문항을 모형에 동시에 통제하는 방법과 함께 5개 설문 문항을 평균하여 통합 변수를 생성해 모형에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적용해 본다.

2. 선행연구 정리

가정 내 무급노동 분업에 관련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간 가사 노동의 시간 분배를 설명하는 이론 중 상대적 자원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상대적 자원 이론은 부부 사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정 내 무급노동 분배에 대한 협상력을 측정하므로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분석 조건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의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허수연, 2008; 은기수, 2009; 김진욱·고은주, 2014; 배호중, 2015; 안미영, 2016, 2017; 허수연·김한성, 2019).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통일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김수정·김은지(2007), 허수연(2008), 김진욱·고은주(2014), 그리고 배호중(2015)은 상대적 자원 이론이 우리나라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 분배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허수연·김한성(2019)은 상대적 자원 이론이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 분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미영(2017)은 부부간 상대적 자원 수준이 (가사 노동에는 영향

이 없지만) 돌봄 노동에서만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유급 노동시간을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 분배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 기존 연구는 비교적 통일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시간의 증가는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가용시간이 감소할수록 무급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이다. 안미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남녀의 유급 노동시간 증가는 각자의 절대적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며, 가사 및 돌봄 노동 분담률을 하락시킨다고 주장한다. 이현아·김주희(2021)는 주 40시간 이상(또는 이하)의 근로 여부와 주 5일 근무 제도가 세대별 기혼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혼 남성에 비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혼 남성은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 여부는 기혼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호중(2015)은 기혼 여성의 유급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가사 노동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아내의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 노동시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가정 내 성역할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가치관을 주로 ‘전통적’과 ‘비전통적’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박기남(2009)은 취업한 기혼 여성이 가진 성역할 태도 및 인식 차이에 따른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간 분배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함께 가정의 경제력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는데, 가정의 경제력 변수는 시간 분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가정 내 성역할 가치관 차이에 따라서 그룹 간에 시간 분배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안미영(2017)은 아내와 남편 모두가 비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분배 수준이 개선됨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안미영(2018)은 여성의 가사 노동 분담률 개선에 있어 (여성이 보유한 가치관에 상관없이) 남편의 비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정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추가로 황지수(2022)는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 노동시간이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의 근로 형태에 따른 가정 내 무급노동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 안미영(2018)은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기혼 여성에게 있어 (전업주부보다) 가사 노동시간 분담률이 미미하게 개선되며, 전일제 근로 여성은 전업주부보다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평등하게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미영(2016)의 연구에서는 정규

직 여성이 비정규직 여성보다 돌봄 노동시간이 더욱 길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황지수(2022)의 분석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3. 연구 질문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이론을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문헌에서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 자원 이론에 대한 검증으로 부부간 상대적 소득과 여성의 절대적 소득 수준이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성의 상대적 소득을 통해 부부간 소득 비중이 여성의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여성 본인의 절대적 소득 금액을 통해 여성의 유급노동의 결과가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둘째,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위해 투입한 시간을 활용해 가용시간론을 검증한다. 즉, 여성의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급 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한다. 셋째, 가정 내 남녀 성역할에 대한 기혼 여성의 가치관 차이가 여성 자신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성역할론을 검증한다. 넷째, 전업주부는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을 수행하는 기혼 여성과 비교하여 가사 및 돌봄 노동 공급에 있어 다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설명변수들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무급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가 가정 내 무급노동 분배 문제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고용형태, 교육수준, 성역할 인식 등)이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관련된 이론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유무 및 취업 형태에 따라서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전업주부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업주부가 가사와 돌봄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업주부를 가정 내 무급노동 분배의 불평등 문제에서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면 가정 내 젠더 불평등의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검토할 때 전업주부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가정 내 젠더 불평등 연구 영역을 좀 더 넓혀가려

고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인의 성역할 인식(가치관) 수준을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 남녀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 수준을 모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여성가족패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개인의 성역할 가치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개별 문항을 활용하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5년 작성 주기) 자료를 사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거나 횡단면 분석과 함께 시간 간격이 큰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을 지닌 여성가족패널 데이터(2년 조사 주기)를 활용하여 개인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본다.

III. 실증분석 전략

1. 데이터 및 분석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배포하는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사용한다. 여성가족패널은 전국 일반 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을 3차 조사(2010년) 이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제 분석에서는 여성의 근로시간과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4차 조사(2012년)부터 가장 최근의 8차 조사(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시간 배분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일반적인 초혼 나이 분포와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혼 여성의 나이를 고려하여 분석 표본은 25-55세의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사용 가능한 시간, 경제활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가치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은 개별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및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기

3)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사 및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활동 선

혼 여성을 경제활동 유무 및 특성에 따라 ①전업주부, ②임금근로자, ③자영업자로 구분한 후, 각 유형에 따라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해 본다. 분석 표본에서 여성과 배우자의 경제활동 유형 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특수고용직은 표본 수가 크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⁴⁾ 또한, 남편이 무직(비취업)인 경우도 표본 수가 매우 작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에 투입한 시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패널 조사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평일과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의 평균값)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가사 노동시간은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의 집안일을 하는데 투입된 시간을 의미하며, 돌봄 노동시간은 자녀 돌보기나 연로하신 부모님 또는 아픈 가구원을 돌보는데 투입된 시간을 의미한다. 다만, 돌봄 노동의 경우 본인이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⁵⁾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데 투입된 시간만으로 돌봄 노동시간을 재정의하여 사용한다. <표 1>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의와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분석 표본의 기초 통계

구분	변수 정의	[여성 경제활동 유형]		
		① 전업주부	② 임금근로자	③ 자영업자
종속 변수	여성의 무급 노동 시간 (분)			
	평일 가사 노동	192.9	141.1	137.8
	주말 가사 노동	171.7	157.1	137.6
	평일 돌봄 노동	89.4	37.3	24.8
	주말 돌봄 노동	94.4	52.8	33.7
설명 변수	여성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시간)	0	38.6	45.2
	여성의 월평균 소득 (만원)	0	179.9	199.8
	여성의 상대적 소득 (%)	0	34.7%	36.1%
	일시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지 여부	3.1%	4.4%	4.4%

택의 결과와 개인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 4) 남편의 경제활동 유형(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은 추후 분석 모형에서 설명변수로 통제한다.
- 5) 부모님을 본인이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은 300명으로 전체 분석 표본의 약 1.8%를 차지한다.

구 분	변수 정의	[여성 경제활동 유형]		
		① 전업주부	② 임금근로자	③ 자영업자
	함께 사는 자녀 수 (명)			
	함께 사는 7세 이하 미취학 자녀 수	0.4	0.2	0.1
	함께 사는 초등~고등학생 자녀 수	1.0	1.0	0.9
	[여성의 가치관]1(부정)~4(긍정)점 척도			
	1.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돌봄이 이상적	2.6	2.3	2.3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	2.4	2.6	2.6
	3. 주부가 일하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2.7	2.6	2.6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 공평분담 필요	3.1	3.1	3.1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함	2.2	2.3	2.2
	여성의 나이 (세)	43.2	44.2	45.9
	[여성의 학력]			
	중졸 이하	5.0%	4.9%	7.2%
	고졸	46.4%	45.4%	44.0%
	전문대졸(3년이하)	18.9%	20.3%	17.4%
	대졸(4년) 이상	29.7%	29.4%	31.4%
	[남편의 학력]			
	중졸 이하	4.4%	4.2%	6.6%
	고졸	35.0%	38.1%	37.9%
	전문대졸(3년이하)	14.8%	15.0%	13.1%
	대졸(4년) 이상	45.8%	42.7%	42.5%
	[남편의 경제활동 유형]			
	임금근로자	75.2%	79.6%	58.4%
	자영업	24.8%	20.4%	41.6%
	[지역]			
	서울, 경인 지역	32.9%	29.0%	30.3%
	서울, 경인 외 지역	67.1%	71.0%	69.7%
	전체 표본 수	7,517	6,705	1,990
	(비중)	(46.4%)	(41.4%)	(12.3%)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4차(2012년)~8차(2020년)

- 주: 1. 여성 경제활동 상태 유형별로 해당 변수의 평균 값 또는 비중(%)이 제시됨
 2. 조사 당시 기혼상태의 25~55세 여성만을 분석 표본으로 한정
 3. 무급가족종사자 및 특수고용직은 제외
 4. 기혼 여성의 남편(배우자)이 취업자인 경우만 표본에 포함(비취업자 제외)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분석 표본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비중은 46.4%,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중인 여성의 비중은 41.4%, 자영업자로 경제활동 중인 여성의 비중은 12.3%이다. 둘째,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여성의 무급(가사·돌봄) 노동시간은 전업주부-임금근로자-자영업자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보다 주말 무급노동 시간이 더 짧고, 임금근로자는 반대로 주말의 무급노동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여성이 더 오래 근무하며, 월평균 소득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영업자 여성의 상대적 소득 수준은 부부 소득의 36.1%를 차지하여 34.7%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여성의 상대적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보다 전업주부의 경우 함께 사는 미취학 자녀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국내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과 대졸 이상 학력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업 유형도 학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와 임금근로자 여성의 배우자(남편)는 75% 이상이 임금근로자인 반면, 자영업자 여성의 배우자는 58%만이 임금근로자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남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별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행하며, 가사 및 노동시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표 2>와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사 노동시간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시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보다 월등히 높다(평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전업주부의 약 70% 수준). 그리고 임금근로자 여성의 경우 평일보다는 주말에 가사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데 반해, 자영업자 여성의 경우 주말에 오히려 가사 노동시간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평일 가사 노동의 경우 2012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에는 모든 경제활동 유형에서 가사 노동시간이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차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가 2020년 4월-2021년 5월 기간에 걸쳐서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기혼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 증가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기혼 여성 가사 노동시간 변화

조사 차수	평일 가사 노동시간 (분)			주말 가사 노동시간 (분)		
	전업 주부	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전업 주부	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4차 (2012)	198.4 (100)	142.9 (72.0)	140.4 (70.8)	177.4 (100)	158.4 (89.3)	136.8 (77.1)
5차 (2014)	189.2 (100)	137.5 (72.7)	136.1 (71.9)	162.1 (100)	155.1 (95.7)	135.0 (83.3)
6차 (2016)	189.1 (100)	140.6 (74.4)	136.3 (72.1)	163.8 (100)	152.4 (93.1)	134.5 (82.2)
7차 (2018)	186.8 (100)	134.7 (72.1)	130.4 (69.8)	168.7 (100)	150.5 (89.3)	132.9 (78.8)
8차 (2020)	202.2 (100)	150.4 (74.4)	147.0 (72.7)	190.5 (100)	170.3 (89.4)	150.3 (78.9)

주: 괄호는 전업주부 대비 임금근로 및 자영업 기혼여성의 가사 노동시간 비중을 의미

〈표 3〉 기혼 여성 자녀 돌봄 노동시간 변화

조사 차수	평일 돌봄 노동시간 (분)			주말 돌봄 노동시간 (분)		
	전업 주부	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전업 주부	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4차 (2012)	104.4 (100)	43.3 (41.4)	30.4 (29.1)	110.1 (100)	64.1 (58.3)	42.7 (38.8)
5차 (2014)	87.2 (100)	32.2 (36.9)	24.9 (28.6)	88.3 (100)	46.4 (52.5)	37.9 (42.9)
6차 (2016)	94.9 (100)	42.3 (44.5)	18.5 (19.5)	97.5 (100)	52.8 (54.1)	23.1 (23.6)
7차 (2018)	76.4 (100)	34.8 (45.6)	24.8 (32.4)	89.2 (100)	53.0 (59.3)	35.1 (39.4)
8차 (2020)	77.5 (100)	34.2 (44.1)	26.3 (34.0)	81.2 (100)	49.4 (60.8)	31.0 (38.2)

주: 괄호는 전업주부 대비 임금근로 및 자영업 기혼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 비중을 의미

돌봄 노동시간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은 전업주부의 약 30-50% 수준).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돌봄 노동시간이 평일보다 주말에 약 10분 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가사 노동의 증가량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돌봄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가사 노동시간과는 다르게) 8차 조사에서 증가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의 기초 통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유무 및 활동유형에 따라 각 노동시간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된 요인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여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계적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본다.

3. 실증분석 전략 및 분석 모형

1)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분석에서는 여성가족패널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설명 요인들의 영향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일정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단순한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식 1)의 모형은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수준은 경제활동 유형(Type 1, 2, 3)에 따른 단순한 평균 차이만 존재할 뿐, 각 설명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유사하다는 가정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여기서 Type 1, 2, 3은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인 전업주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를 각각 의미하는 가변수이다. 기혼 여성의 가용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근로시간(*Work Hour*)⁶⁾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여성의 소득 수준이 무급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의 절대적 소득 수준(*Earnings*)⁷⁾과 가구 전체 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 소득 수준(*Earning Ratio*)⁸⁾을 함께 모형에 포함하였다.

6) 근로시간은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전업주부의 경우 근로시간(*Work Hour*)과 소득(*Earnings*)을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7) 소득은 월평균 소득(단위: 만원)을 의미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성과급과 보너스 포함), 자영업자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으로 정의된다.

8) 여성의 상대적 소득 수준(*Earning Ratio*)은 '여성소득/(여성소득+남편소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모형 1]

$$\begin{aligned}
y_{it} = & \alpha_0 + \alpha_1 Type2_{it} + \alpha_2 Type3_{it} \\
& + \beta_1 WorkHour_{it} + \beta_2 Earnings_{it} + \beta_3 EarningRatio_{it} \\
& + \gamma Apart + \delta_1 Kids + \delta_2 School Kids + \theta Age_{it} + \sum_{l=1}^3 \lambda_l Edu_{l,it}^{female} \\
& + \kappa_1 Value1_{it} + \kappa_2 Value2_{it} + \kappa_3 Value3_{it} + \kappa_4 Value4_{it} + \kappa_5 Value5_{it} \\
& + \sum_{m=1}^3 \psi_m Edu_{m,it}^{male} + \mu Type_{it}^{male} + \rho Area_{it} + \sum_{p=1}^4 \pi_p Wave_{p,it} + \epsilon_{it}
\end{aligned}$$

(식 1)

또한, 남편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지 여부(*Apart*)⁹⁾, 함께 사는 7세 이하 미취학 자녀 수(*Kids*), 함께 사는 초등-고등학생 자녀 수(*School Kids*), 여성의 나이(*Age*)¹⁰⁾, 여성의 학력 수준(*Edu^{female}*)¹¹⁾, 남편의 학력 수준(*Edu^{male}*), 남편의 경제활동 유형(*Type^{male}*), 거주지역(*Area*)¹²⁾, 조사 차수(*Wave*)¹³⁾를 모형에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가치관) 수준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가정 내 남녀 역할에 대해 조사한 5개 문항¹⁴⁾에 기혼 여성이 답변한 결과를 설명변수(*Value 1-5*)로 활용하였다.

9) 직장, 자녀교육, 돌봄, 학업, 치료·요양 등의 이유로 부부가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를 의미하여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10)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이 25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여성의 나이는 '조사 당시 연령-25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11)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되며 분석 모형에서는 고졸을 비교기준(base category)으로 설정하였다.

12)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비교기준(base category)이며 그 외 지역을 의미하는 가변수(*Area*)가 모형에 사용되었다.

13) 차수(*Wave*)는 4-8차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8차(2020년)의 시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비교기준은 7차(2018년)로 설정하였다.

14)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해 조사하는 5개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②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 ③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④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 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2)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두 번째 분석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서 설명변수들이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투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식 2)로 표현된 모형 2에서는 앞 절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에 경제활동 유형(*Type 1-3*) 변수를 곱한 형태의 교호항(Interaction terms)을 활용하였다. 즉, 이 모형을 통해서는 앞 절과 동일한 설명변수의 효과를 분석하지만, 그 효과가 각 경제활동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과 ‘미취학 아동 수’의 교호항인 ‘ $(\beta_{1,1} \times \text{Type}_{1,it} \times \text{Kids}_{it}) + (\beta_{1,2} \times \text{Type}_{2,it} \times \text{Kids}_{it}) + (\beta_{1,3} \times \text{Type}_{3,it} \times \text{Kids}_{it})$ ’ 변수들의 경우 함께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수가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Type*₁, *Type*₂, *Type*₃)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며, 각 경제활동 유형별 효과($\beta_{1,1}$, $\beta_{1,2}$, $\beta_{1,3}$)를 따로 추정하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근무시간과 소득 변수의 값이 ‘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모형 내에서 그 효과가 추정되지 않는다.

[모형 2]

$$\begin{aligned}
 y_{it} = & \alpha_1 + \alpha_2 \text{Type}_{2,it} + \alpha_3 \text{Type}_{3,it} + \sum_{\omega=1}^3 \beta_{1,\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Work Hour}_{it}] \\
 & + \sum_{\omega=1}^3 \beta_{2,\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Earnings}_{it}] + \sum_{\omega=1}^3 \beta_{3,\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Earning Ratio}_{it}] \\
 & + \sum_{\omega=1}^3 \gamma_{\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Apart}_{it}] + \sum_{\omega=1}^3 \delta_{1,\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Kids}_{it}] \\
 & + \sum_{\omega=1}^3 \delta_{2,\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School Kids}_{it}] + \sum_{\omega=1}^3 \theta_{\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Age}_{it}] \\
 & + \sum_{\omega=1}^3 \sum_{l=1}^3 [\text{Type}_{\omega,it} \times \lambda_l \text{Edu}_{l,it}^{\text{female}}] + \sum_{\omega=1}^3 \sum_{q=1}^5 [\text{Type}_{\omega,it} \times \kappa_q \text{Value}_{q,it}] \\
 & + \sum_{m=1}^3 \psi_m \text{Edu}_{m,it}^{\text{male}} + \mu \text{Type}_{it}^{\text{male}} + \sum_{\omega=1}^3 \rho_{\omega} [\text{Type}_{\omega,it} \times \text{Area}_{it}] \\
 & + \sum_{\omega=1}^3 \sum_{p=1}^4 \pi_p [\text{Type}_{\omega,it} \times \text{Wave}_{p,it}] + \epsilon_{it}
 \end{aligned}$$

(식 2)

IV. 분석 결과

1.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을 사용하여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평일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의 평균 차이는 모형을 통해 설명변수를 통제하고 난 이후 그 수준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보다 가사 노동의 경우 약 8-10분, 돌봄 노동의 경우 약 21-25분 적게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설명변수에 의한 효과가 기초 통계량에서 관찰된 평균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설명변수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 노동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돌봄 노동시간의 감소 효과는 주말에만 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부의 무급노동 시간 분배를 설명하는 가용시간 이론은 국내에서 돌봄 노동보다는 가사 노동에 있어서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혼 여성의 절대적 소득액의 증가는 평일에 있어서만 가사와 돌봄 노동을 모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부부 전체 소득 중 여성 소득의 비중으로 측정한 여성의 상대적 소득 수준 증가는 평일과 주말의 가사 노동을 감소시키지만, 돌봄 노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의 주말 돌봄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다.¹⁵⁾ 따라서, 부부간 무급 노동시간의 분배를 설명하는 상대적 소득이론은 여성의 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시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 여성의 가사 노동은 평일과 주말에 모두 감소하지만, 평일 돌봄 노동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넷째, 함께 사는 미취학 아동의 수는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학 자녀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평일(주말) 가사 노동은 약 23분(20분), 평일(주말) 돌봄 노동은 약 110분(128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어떤 설명 요인들 보다도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을 변

15) 여성의 상대적 소득 증가가 주말 돌봄 노동을 증가시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변수의 효과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시키는 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아동 양육에 따른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부담 가중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초등-고등학생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약 10분 정도 증가하지만, 돌봄 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문항 1, 3)을 가진 여성의 경우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적인 가치관(문항 2, 5)을 가진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다만, 기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가사 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돌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6) 문항 1과 3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으로, 문항 2, 4, 5는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묻는 설문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문항 1, 2, 3, 5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에 부합되는 결과로 해석되는 반면, 문항 4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별 효과를 나눠서 분석한 다음 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7) 현재 분석에서는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개별 문항 5개를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개별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개인의 가정 내 성역할 가치관에 대한 한 개의 통합 변수를 모형에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개별 문항의 답변은 ④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가치관이 되도록 재조정 후 통합 변수로 변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가까울수록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반면, 돌봄 노동에는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노동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로 나타나 다음 절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치관의 효과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기혼 여성의 성역할 인식 영향: 가치관 통합 변수 사용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가정 내 성역할 가치관 통합 변수 : ①~④점 척도 (④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가치관)	10.171***	14.260***	-6.104**	-9.809***

〈표 4〉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여성 경제활동 유형] (base: 전업주부)				
1. 임금근로자	-9.714***	16.010***	-25.64***	-20.39***
2. 자영업자	-7.966**	0.819	-21.70***	-20.32***
여성 주당 평균 근무시간	-0.389***	-0.386***	-0.069	-0.210*
여성 월평균 소득 (만원)	-0.045***	0.009	-0.034***	-0.001
여성 상대적 소득 (%)	-0.406***	-0.386***	0.079	0.292**
일시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지 여부	-14.38***	-12.44***	-1.901	-13.10**
함께 사는 7세 이하 미취학 자녀 수 (명)	23.670***	20.320***	110.7***	128.7***
함께 사는 초등~고등학생 자녀 수 (명)	9.860***	10.900***	-3.733**	-1.252
[여성 가치관] 1(부정)~4(긍정)점 척도				
1.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돌봄이 이상적	3.671***	2.540**	-0.056	0.976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	-4.505***	-4.334***	-1.606	-1.326
3. 주부가 일하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5.247***	5.763***	1.303	-1.058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 공평분담 필요	8.113***	6.284***	9.494***	11.37***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함	-3.496***	-6.796***	0.604	1.281
여성 나이 (연령-25세)	0.486***	0.295	-3.667***	-4.117***
[여성 학력] (base: 고졸)				
중졸 이하	-8.511**	-7.889	12.93***	11.81***
전문대졸(3년이하)	0.258	-0.897	8.244**	11.75***
대졸(4년제) 이상	2.852	1.330	9.529***	11.68***
[남편 학력] (base: 고졸)				
중졸 이하	4.175	-0.842	-4.076	-2.569
전문대졸(3년이하)	-2.294	-2.063	8.122**	8.202
대졸(4년) 이상	-3.732*	-5.285*	3.005	1.471
남편 경제활동 형태: 자영업 (base: 임금근로자)	4.903***	5.510**	0.644	0.522
서울, 경인 지역 외 (base: 서울, 인천, 경기)	-6.465***	3.711*	-11.55***	-11.61***
[차수] (base: 7차, 2018년)				
4차 (2012년)	5.215***	3.423	-4.916	-9.310**
5차 (2014년)	-0.136	-4.274**	-3.179	-10.06***
6차 (2016년)	2.737*	-2.514	1.187	-8.153***
8차 (2020년)	16.50***	20.90***	6.634***	1.538
상수항	136.4***	129.0***	89.59***	94.58***
표본수	16,104	16,103	16,115	16,114

주: 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 여성(=전업주부)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0으로 설정

2. 표준오차는 개별 응답자 수준에서 군집하여 추정된 결과

3.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이는 성역할 인식 수준을 뛰어넘어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현재 분석 모형에 있어서는 미취학 아동의 수가 다른 어떤 요인들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도 기혼 여성의 돌봄 노동시간 투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곱째, 여성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평일 가사 노동시간은 소폭 증가하지만, (평일과 주말) 돌봄 노동시간은 확연히 감소한다. 이는 여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덟째,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가사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중졸 이하 평일 가사 노동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지만, 돌봄 노동의 경우 비교 대상인 고졸 여성보다 중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아홉째, 남편의 학력 수준은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편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남편이 임금근로자일 경우보다) 기혼 여성의 평일 가사 노동시간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기혼 여성의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일 경우 그 외 지역보다 (평일) 가사 노동 및 (평일과 주말)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나타내는 8차 조사의 경우 (평일과 주말) 가사 노동과 (평일) 돌봄 노동에 있어서 비교 대상인 7차 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효과는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가사 노동의 증가로 연결되었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이번 절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과 설명변수들의 교호항을 사용한 [모형 2]를 추정한 결과를 살펴본다. [모형 2]는 앞 절에서 제시된 설명변수들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모형 2]를 추정한 전체 분석 결과는 부록의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우선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경제활동 유형별로 통제한 이후 ①전업주부 대비) ②임금근로자 및 ③자영업자의 평

18) 일반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졸 여성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도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에 포함된 다른 설명변수들이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차이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설명변수의 효과 추정에서도 경제활동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후에는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절대적 또는 상대적) 소득 수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절대적 소득 수준과 배우자(남편) 대비 상대적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여성이 평일 가사 노동시간에 투입하는 시간은 분명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효과는 여성의 절대적 소득이 증가할 때 보다, (남편 대비) 상대적 소득 수준이 증가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 부부 사이에 적절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가사 분담을 조정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이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 여성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임금근로자 여성의 경우 상대적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말 가사 노동시간도 줄어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 노동의 경우 여성의 절대적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일 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돌봄 노동 시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절대적 소득의 효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주말 돌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데, 이는 상대적 소득 증가에 따라 주말 가사 노동을 크게 줄여나가며 확보한 시간을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데 좀 더 투입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5〉 기혼 여성의 절대적·상대적 소득 수준 영향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여성 소득 (만원)]				
① 전업주부 × 소득	-	-	-	-
② 임금근로자 × 소득	-0.033**	0.027	-0.031**	-0.011
③ 자영업자 × 소득	-0.030**	-0.026	-0.023**	-0.017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여성 상대적 소득 (%)]				
① 전업주부 × 상대적 소득	-	-	-	-
② 임금근로자 × 상대적 소득	-0.506***	-0.502***	0.219*	0.430***
③ 자영업자 × 상대적 소득	-0.287**	-0.191	0.082	0.0362

주)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2) 가용시간

여성의 가용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형에 포함된 근무시간(경제활동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그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 추정되지 않았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여성 모두 경제활동에 따른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평일과 주말) 가사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돌봄 노동에 있어서 임금근로자는 근무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자영업자 여성은 근무시간이 증가할 때 돌봄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혼 여성의 근무시간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사 노동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근무시간의 증가가 돌봄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자영업자 여성에게서 더 크고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6〉 기혼 여성의 근무시간 영향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여성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① 전업주부 × 근무시간	-	-	-	-
② 임금근로자 × 근무시간	-0.525***	-0.345***	-0.232*	-0.260
③ 자영업자 × 근무시간	-0.495***	-0.488***	-0.249**	-0.321**

주)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3) 기혼 여성의 성역할 인식(가치관)

가정 내 남녀 성역할에 대한 기혼 여성의 가치관 차이가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의 가사

노동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만, 돌봄 노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7〉 기혼 여성의 성역할 인식(가치관) 영향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1.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전통적)				
① 전업주부 × 가치관1	2.960**	5.011***	-0.234	2.385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1	3.012**	-0.269	-1.069	-1.228
③ 자영업자 × 가치관1	5.643***	2.890	-1.909	-0.587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비전통적)				
① 전업주부 × 가치관2	-5.313***	-5.037***	-0.174	-1.581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2	-3.436***	-4.088**	-2.804	-0.878
③ 자영업자 × 가치관2	-1.042	-2.693	4.033*	1.993
3.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통적)				
① 전업주부 × 가치관3	6.624***	6.069***	0.764	-1.152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3	3.682***	5.831***	-1.093	-1.596
③ 자영업자 × 가치관3	0.683	3.086	-1.066	-3.994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비전통적)				
① 전업주부 × 가치관4	8.748***	2.845	17.94***	18.37***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4	7.562***	9.942***	2.003	5.014**
③ 자영업자 × 가치관4	5.703**	6.503**	-0.0535	2.448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비전통적)				
① 전업주부 × 가치관5	-3.160**	-5.980***	0.552	1.898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5	-3.831***	-7.876***	0.248	0.020
③ 자영업자 × 가치관5	-3.096	-4.685*	2.602	4.191

주)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둘째,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전업주부와 임금근로자 여성의 경우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만, 자영업자 여성의 경우에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셋째, 가치관 문항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의 경우 비전통적인 성향을 묻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효과가 여성의 가사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업주부에 있어서 돌봄 노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전업주부에 있어서 효과가 가장 크고 명백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의 경우 만약 자신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맞벌이 부부가 된다면 ‘부부가 집안일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현재의 자신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가사 및 돌봄 시간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⁹⁾

4)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 및 자녀 나이

함께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의 수는 전업주부와 임금근로자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업주부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경우 (평일과 주말의) 가사 노동시간은 약 24-28분, 돌봄 노동시간은 2시간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여성도 미취학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가사 및 돌봄 노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자영업자 여성의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가사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함께 거주하는 초등-고등학생 자녀의 수는 경제활동 유형에 상관없이 가사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초등-고등학생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일 돌봄 노동시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앞 절에서 시도한 방식과 동일하게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성역할 가치관을 묻는 5개 개별 문항을 평균하여 1개의 통합 변수를 생성한 후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전업주부와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유할수록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전통적 가치관에 가까울수록 돌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4번 문항의 효과를 설명한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즉, 4번 문항의 결과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돌봄 노동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5개 문항을 평균한 통합 변수의 경우 4번을 제외한 다른 문항의 효과가 미미하여 4번 문항의 영향력이 통합 변수의 효과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4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가까울수록 돌봄 노동을 줄여나가는 이유는 본문에 제시된 설명을 참조)

〈표〉 기혼 여성의 성역할 인식 영향: 가치관 통합 변수 사용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통합 변수: ①-④점 척도 (④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① 전업주부 × 가치관 통합	11.46***	20.78***	-14.44***	-13.56**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 통합	6.846**	7.699**	-1.302	-6.648
③ 자영업자 × 가치관 통합	5.238	7.386	-9.884*	-13.13*

주)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표 8〉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 영향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7세 이하 미취학 자녀 수]				
① 전업주부 × 미취학 자녀 수	28.24***	24.43***	122.80***	129.1***
② 임금근로자 × 미취학 자녀 수	17.39***	15.54***	82.12***	119.9***
③ 자영업자 × 미취학 자녀 수	3.10	3.84	88.75***	133.4***
[초등-고등학생 자녀수]				
① 전업주부 × 초등-고등 자녀 수	12.56***	12.27***	-6.87**	-2.03
② 임금근로자 × 초등-고등 자녀 수	7.93***	10.19***	-1.22	-0.92
③ 자영업자 × 초등-고등 자녀 수	4.78**	7.58***	3.95	5.31

주)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5) 기타 변수

첫째, 기혼 여성의 나이 증가에 따른 효과는 가사 노동보다는 돌봄 노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모든 경제활동 유형에서 돌봄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나이 증가에 따라 자녀의 나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경제활동 유형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평일 가사 노동시간도 증가하는데, 이는 상당수 기혼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제 일자리로 옮겨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젊은 여성(종일제) 임금근로자보다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학력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경우 중졸 이하의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가사 노동은 적게 수행하지만, 돌봄 노동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현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이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가지 가능성은 만약 중졸 여성 가구의 소득 수준이 다른 학력 수준을 지닌 여성의 가구 소득보다 현저히 낮다면 미취학 자녀 돌봄에 있어서 외부 도움이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돌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기혼 여성의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전업주부의 경우 서울과 경인 지역에 거주할수록(평일)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경인 지역에 거주할수록 (그 외 지역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열의가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울·경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주말 가사 노동에 (서울·경인 지역 자영업자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자 여성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경인 외 지역 여성이 주말에 더 많은 가사 노동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 지역의 여성들에게 있어 주말에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기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⁰⁾

6) 코로나 팬데믹 영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유형에 크게 상관없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8차²¹⁾)에 기혼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이 (7차 년도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업주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여성 모두에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사 노동 부담이 증가하였다.

반면, 돌봄 노동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의 평일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특별히 돌봄 노동 부담이 더 증가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이는 상당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로나 확산 이전 시기부터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돌봄)자를 활용하고 있는 점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추가로 요구되는 돌봄 노동의 증가를 전업주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지만,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여성의 경우 외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20) 예를 들어 서울·경인 외 지역에서 음식배달이나 외식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제한이 존재할 경우 이들 지역의 여성들은 주말에 음식 준비 등으로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21) 여성가족패널의 7차 설문은 2018.8월-2019.4월 기간에 조사되었고 8차 설문은 2020.4월-2021.5월 기간에 걸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8차 조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및 돌봄 방식의 변화가 반영된 시기로 볼 수 있다.

〈표 9〉 코로나 팬데믹 영향

설명변수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설문 차수] (base: 7차, 2018년)				
전업주부 × 4차 (2012년)	7.204**	2.923	-1.142	-9.627
전업주부 × 5차 (2014년)	-0.739	-10.67***	0.772	-11.95*
전업주부 × 6차 (2016년)	0.476	-7.164**	0.704	-10.04*
전업주부 × 8차 (2020년)	16.98***	23.59***	10.92**	2.631
임금근로자 × 4차 (2012년)	2.136	3.512	-8.757**	-11.14**
임금근로자 × 5차 (2014년)	-0.711	1.482	-6.145*	-9.870**
임금근로자 × 6차 (2016년)	5.377**	1.486	3.657	-4.550
임금근로자 × 8차 (2020년)	16.15***	19.48***	3.190	1.106
자영업자 × 4차 (2012년)	7.758*	3.275	-1.207	-1.771
자영업자 × 5차 (2014년)	4.805	0.849	-2.460	-0.592
자영업자 × 6차 (2016년)	3.967	0.669	-8.050**	-15.21**
자영업자 × 8차 (2020년)	15.88***	16.90***	3.002	-2.961

주)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V. 결론 및 시사점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지속 상승해 오고 있지만, 그에 비해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가사와 돌봄 노동 등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에 있어 성별 간 불평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의 성별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기혼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자원 이론을 바탕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변화가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의 상대적인 경제력, 무급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시간, 그리고 가정 내 성역할 인식 수준을 모두 분석 모형의 변수로 설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무급 노동시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4-8차(2012-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전업주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에 따른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여

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기혼 여성과는 매우 다른 시간 분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업주부를 분석에 포함하여 다른 경제활동 유형의 여성들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를 분석 표본에 포함하여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분배 문제를 설명하는데 기존의 상대적 자원 이론, 가용시간론, 그리고 성역할론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지 검증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변수의 영향력까지 검토해 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소득 증가에 따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패턴은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절대적 소득 수준의 증가보다 (남편 대비) 상대적 소득 수준이 증가할 때, 무급노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시간은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돌봄 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나, 돌봄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여성 가치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기혼 여성의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설명변수는 미취학 아동의 수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 여성은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미취학 아동 수의 효과는 다른 어떤 설명 요인보다도 그 영향력이 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정 내 무급노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혼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확연히 증가하였지만, 돌봄 노동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의 평일 노동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 외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과 절대적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노동 분배의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사 및 돌봄 노동 부담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 돌봄 서비스,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제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돌봄 서비스 등의 강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는 가사

노동보다 미취학 아동의 돌봄 공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하겠다.

정책적 개입과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은 노동시장으로부터 기인한 요인과 함께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정 내 성역할 인식(가치관) 수준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개인이 균형적인 성역할 인식(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가정 내 무급노동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간접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간접적인 교육 정책을 병행하여 유급노동 영역과 무급노동 영역 모두에서 성별 간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안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 변화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가사 및 돌봄 노동 분담은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다. 향후 남편의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까지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종합적이고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여성가족패널의 8차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초래된 가사 및 돌봄 노동 분배의 부부간 불평등 심화(또는 완화)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제41권 제2호. 147-174.
- 김진욱·고은주(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2호. 135-161.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갈등 연구: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제2호. 37-71.
- 배은경·박기남·류임랑·박혜림·엄혜진·최은영·위선주·김한나(2009).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20-30대 여성 심층 조사*. 서울:여성부.
-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151-181.
- 안미영(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112호. 13-40.
- _____(2017). “자원의 상대성과 가족 내 노동 분배의 젠더 불평등: 한국 유급노동자 부부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83-102.
- _____(2018).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7권 제2호. 45-71.
- 이현아·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25권 제4호. 71-86.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호. 145-171.
- 윤자영(2020).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허수연·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64호. 5-28.
-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177-210.
- 황지수(202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 시간”. *노동경제논집*. 제45권 제3호. 1-41.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s://kosis.kr/>.
_____(2004). “생활시간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s://kosis.kr/>.
_____(2009). “생활시간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s://kosis.kr/>.
_____(2014). “생활시간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s://kosis.kr/>.
_____(2019). “생활시간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s://kosis.kr/>.
_____(2020). “지역별 고용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s://kosis.kr/>.

- Becker. G.(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33-58.
Brines. J.(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652-688.
Greenstein. T. N.(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322-335.
Hwang. J.S.(2021). Later, Fewer, None?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 *Working Paper*.

〈부표 1〉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명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경제활동 유형 (base: ①전업주부)	② 임금근로자	-10.20	0.142	-3.312	-13.17
	③ 자영업자	-2.696	-12.40	-46.03*	-46.54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① 전업주부 × 근무시간	-	-	-	-
	② 임금근로자 × 근무시간	-0.525***	-0.345***	-0.232*	-0.260
	③ 자영업자 × 근무시간	-0.495***	-0.488***	-0.249**	-0.321**
여성 절대적 임금 (만원)	① 전업주부 × 임금	-	-	-	-
	② 임금근로자 × 임금	-0.033**	0.0271	-0.031**	0.011
	③ 자영업자 × 임금	-0.030**	-0.026	-0.023**	-0.017
여성 상대적 임금 (%)	① 전업주부 × 상대적 임금	-	-	-	-
	② 임금근로자 × 상대적 임금	-0.506***	-0.502***	0.219*	0.430***
	③ 자영업자 × 상대적 임금	-0.287**	-0.191	0.082	0.036
일시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거주	① 전업주부 × 떨어져 거주	-24.20***	-11.650	-4.708	-18.81*
	② 임금근로자 × 떨어져 거주	-9.143**	-10.940*	-1.328	-11.42
	③ 자영업자 × 떨어져 거주	-9.118	-23.630**	1.182	-6.670
함께 사는 7세이하 미취학 자녀 수	① 전업주부 × 미취학 자녀 수	28.240***	24.430***	122.80***	129.1***
	② 임금근로자 × 미취학 자녀 수	17.390***	15.540***	82.12***	119.9***
	③ 자영업자 × 미취학 자녀 수	3.104	3.839	88.75***	133.4***
함께 사는 초등-고등학교생 자녀 수	① 전업주부×초등-고등 자녀 수	12.560***	12.270***	-6.874**	-2.028
	② 임금근로자×초등-고등 자녀 수	7.930***	10.190***	-1.222	-0.915
	③ 자영업자×초등-고등 자녀 수	4.784**	7.582***	3.945	5.305
가치관 1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돌봄이 이상적)	① 전업주부 × 가치관 1	2.960**	5.011***	-0.234	2.385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 1	3.012**	-0.269	-1.069	-1.228
	③ 자영업자 × 가치관 1	5.643***	2.890	-1.909	-0.587
가치관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	① 전업주부 × 가치관 2	-5.313***	-5.037***	-0.174	-1.581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 2	-3.436***	-4.088**	-2.804	-0.878
	③ 자영업자 × 가치관 2	-1.042	-2.693	4.033*	1.993
가치관 3 (주부가 일하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① 전업주부 × 가치관 3	6.624***	6.069***	0.764	-1.152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 3	3.682***	5.831***	-1.093	-1.596
	③ 자영업자 × 가치관 3	0.683	3.086	-1.066	-3.994
가치관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 공평분담 필요)	① 전업주부 × 가치관 3	8.748***	2.845	17.940***	18.37***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 3	7.562***	9.942***	2.003	5.014**
	③ 자영업자 × 가치관 3	5.703**	6.503**	-0.054	2.448
가치관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함)	① 전업주부 × 가치관 3	-3.160**	-5.980***	0.552	1.898
	② 임금근로자 × 가치관 3	-3.831***	-7.876***	0.248	0.020
	③ 자영업자 × 가치관 3	-3.096	-4.685*	2.602	4.191

〈부표 1〉 기혼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속)

변수명		I. 가사 노동		II. 돌봄 노동	
		(1) 평일	(2) 주말	(3) 평일	(4) 주말
여성 나이 (연령 - 25세)	① 전업주부 × 연령	0.220	0.185	-5.212***	-5.219***
	② 임금근로자 × 연령	0.684***	0.357	-2.537***	-3.464***
	③ 자영업자 × 연령	0.230	0.254	-1.382***	-1.420*
여성 학력 (base: 고졸)	① 전업주부 × 중졸 이하	-15.43***	-12.810*	19.350***	11.40*
	① 전업주부 × 전문대졸(3년이하)	0.994	-4.707	15.030**	15.90**
	① 전업주부 × 대졸(4년제) 이상	5.116	-2.970	10.380*	6.188
	② 임금근로자 × 중졸 이하	0.940	-2.901	7.382*	9.788**
	② 임금근로자 × 전문대졸	1.988	2.564	1.813	8.620
	② 임금근로자 × 대졸 이상	-0.065	3.259	9.726**	18.08***
	③ 자영업자 × 중졸 이하	-10.18	-8.719	10.430**	10.33*
	③ 자영업자 × 전문대졸	-11.51**	1.207	3.780	7.549
	③ 자영업자 × 대졸 이상	-1.074	8.156	3.220	5.750
지역 (base: 서울, 인천, 경기)	① 전업주부 × 서울·경인 외 지역	-16.79***	0.564	-15.00***	-16.83***
	② 임금근로자 × 서울·경인 외 지역	3.483	4.157	-9.825***	-7.700*
	③ 자영업자 × 서울·경인 외 지역	3.454	15.940***	-2.301	-2.971
남편 학력	중졸 이하	5.094	-0.288	-3.100	-2.021
	전문대졸(3년이하)	-2.008	-2.084	9.106**	8.804*
	대졸(4년) 이상	-3.615*	-5.231*	5.052	2.272
남편 경제활동 유형	자영업자 (base: 임금근로자)	4.450**	5.535**	0.303	0.055
차수 (년도)	4~8차 (base: 7차, 2018년)	Yes	Yes	Yes	Yes
상수항	-	141.10***	137.80***	86.27***	94.52***
표본수		16,104	16,103	16,115	16,114

주: 1. 표준오차는 개별 응답자 수준에서 군집하여 추정된 결과

2. 통계적 유의수준: ***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

Abstract

The change in unpaid household and care work of married women in Korea

Tai Lee*·Joonhong Ah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unpaid household and care work of married women in Korea. We classify the type of economic activity into out-of-labor force(housewife), wage and salary worker, and the self-employed and then analyze the differences in unpaid household and care work of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 type of economic activity.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labor income of married women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unpaid housework hours and this negative impact is more significant in wage and salary workers than the self-employed. Second, the working hours of married women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household work but not with care work. Third, traditional women in gender roles are more likely to spend more time in housework than non-traditional women. Fourth,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increase housewife's household and caring work. Lastly, we confirm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increased substantially the household work of married women but we cannot find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it on care work.

Keywords : Time allocation of married women, Household work, Care work. Gender role, Unpaid work

* First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Procurement